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Bartholomew Choi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510) 562-3843 email : meoamor@gmail.com 사목회장 영광식 니콜라오 (510) 332-8782 email : myoungkwangsik@gmail.com	사무실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email : standrewoak@gmail.com 화, 금 휴무 선종봉사회장 팽현팔 하비에르 (510) 847-3014
---	--

미사	주일미사	오전 8시, 11시 영어미사 : 매월 마지막 주 오후 4시
	평일미사	화, 목요일 오후 7:30 수, 금, 토요일 오전 7:30

성사	고백성사	매 미사 30분 전
	유아세례	사무실에 신청
	혼배성사	3개월 전 사무실에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 목요일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매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성령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향심기도회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대건회관
	지속적인성체조배	매월 첫 금요일 9PM ~ 토요일 7AM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와 함께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시 반 교육관 106호실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 연중 제 27 주일/군인주일 미사 전례 >

[입 당 송] 에스 4,17②-③ 참조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대영광송>

[제 1독서] 이사 5,1-7

[화 답 송] 시편 80(79),9와 12.13-14.15-16.19-20(◎ 이사 5,7ㄱ-ㄴ 참조)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 오시어,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으셨나이다.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 그 햇순들은 강까지 뻗었나이다. ◎

○ 어찌하여 당신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 먹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파헤치고, 들짐승이 짓밟아 버리나이다.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들,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제 2독서] 필리 4,6-9

[복음환호송] 요한 15,1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복 음] 마태 21,33-43

[영성체송] 애가 3,25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하느님께서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인간만 모르는 사실이 있다.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구가 화가나 있다’는 사실이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지구의 응징의 차원을 경험하게 된다. 그 응징이란 엄청나게 긴 장마, 이어지는 태풍들, 폭염, 그리고 세상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민간세상과 달리 군대는 여전히 종교활동 중지를 지속하고 있다. 조금 좋아지면 영내에서 병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사회의 확진자가 늘어나면 그마저도 중지된다. 그러다 보니 요즘 신부로서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개점휴업 상태이다. 또, 군인 신분이기엔 감염 차단을 위해 대민접촉을 줄이고 영내 대기에 준한 숙소 대기가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나름의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미사하고 부대 출근하고 돌아오면 체력 단련하고 남는 시간에 마당에 풀 뽑고, 그리고 밥해 먹고 이어서 함께 미사드릴 수 없는 신자들에게 오늘의 단상을 정리해서 문자 넣어주고 답장 기다리고 하는 일상이다.

신자들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결의 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점차 그것도 시들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곧 사태가 마무리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가정 기도회 충실하던 이도 점점

게을러짐을 이야기하고, ‘이참에 잘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잠시 쉬면서 잠정적 냉담의 길을 걷는 이도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성당에 홀로 기도하는 기도꾼도 틈틈이 보이다가 지금은 그마저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하느님께서서는 작금의 사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계신 듯하다. 신앙이 나의 전부였던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신앙이 나의 일부분에 불과하거나, 어떤 수단이나 목적,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행복 추구만을 위한 것이었던 사람 중에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다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도 있을 것이다. 이제 스스로 각자의 소출을 낼 때이다. 할 일 없는 사제가 할 일 없이 사는 것과 할 일을 찾아 사는 것은 극명하게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군대에서도 종교활동이 재개되면 나는 나에게도,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것 같다. “우리는 과연 소출을 내는 신자들이었는가?” 나는 오늘부터 곰곰이 앉아 셈을 해 보아야겠다.

현광섭 프란치스코 신부
군중-육군

-미사지향

날짜	지향	봉헌자	날짜	지향	봉헌자
10/4(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생	원프란치스코(광희)	찬미성가대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생	Dan Laningham	심데레사
	연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 가족	생	황말찌나(정숙)	라스모아/라모리다반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생	황말찌나(정숙)	이골롬바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아네스	생	황말찌나(정숙)	김젬마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생	황말찌나(정숙)	김엘리사벳
	연 유데레사(춘성)	가족	생	김율리엣다(정희)	이골롬바
	연 정베드로(창희)	정아가다(청자)	생	박헬레나	김엘리사벳
	연 박안드레아(추웅)	가족	10/6(화)	연 고야고보(명재)	임클라라(은석)
	연 최모니카(임구)	최안드레아(용석)		연 김요아킴(형찬)	가족
	연 김프란치스코(범식)	김마리안나(정임)		연 김세실리아(종운)	정요한/가브리엘라
	연 김다윗(승우)	소베드로(명환)		연 김세실리아(종운)	임루카/클라라
	연 송아벨(성호)	송아네스(성숙)	10/8(목)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연 김제이슨(재성)	김케네스 가족		생 이야고보(원진)	이바오로(명국)
	연 이요셉(건용)	임비비안나(유지)	10/9(금)	연 김다윗(승우)	황말찌나(정숙)
	연 이요한(세영)/조상	이요셉(병열)		연 황마르코(문환)	가족
	연 부모님	이루시아(영문)		생 박토마스모어	박헬레나
	연 Michael Smith	심데레사	10/10(토)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연 Glen Laningham	심데레사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김중화/이열자	정데레사(혜경)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생 주임신부	임비비안나(유지)		연 김아네스(순이)	가족
	생 전례봉사자들	임비비안나(유지)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

- 우리의 정성

- < 주일헌금 > \$1,749
- < 교무금 > \$4,000
허두근(9-10) 전윤자(11-12) 임석호(8-9) 이용길(9) 조진행(10)
심태규(7-9) 성동화(8-11) 김휘(7-8) 황혜정(7-12) 이경섭(9-10)
송정연(10-11) 이재우(1-6) 이흥구(9-12) 임장만(7-12) 김관숙(10)
이병열(10-12)
- < 성소후원금 > \$ 160
팽현팔(8-10) 임유지(7-12) 이선미(9-10) 양우선(7-9)
- < Bishop's Appeal > \$ 30
이용길(3/21) 이경섭(10)
- < 감사헌금 > \$ 300
박은영, 이윤지
- < 빈첸시오 노숙자 돕기 후원금 >
정기환

< 2020 비전 목표 >

- ♡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 ♡ 신바람 나는 공동체
(성령의 은총이 가득한 공동체)

< 실천사항 >

1.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2.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3.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
4.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

* 성당 시설이나 비품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프란치스코(10/4) : 원광희
- * 로사리아(10/7) : 김경숙
- * 아브라함(10/9) : 박인준
- * 사라(10/9) : 심진수

<p>광고문의 사무실 510-553-9434</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SHINSEGAE TRAVEL 510-688-0155 이 베로니카 510-688-0157 이 레이몬드</p>	<p>정 태준(안토니오) 자동차정비 & 바디 Work 929 38th Ave. Oakland, CA 94601 ☎ 510-552-4418 Fax 510-535-0818</p>	<p>한인 크레딧 유니온은 금융기관입니다. 자동차대출, 체크킹, 적금 2368 El Camino Real Santa Clara (408) 260-0900</p>
<p>송 이 응 법 무 (510)292-6050 ldanea.song@gmail.com 1723 Telegraph Oakland</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 (510)504-9250</p>	<p>J &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 ☎(510) 236-0550 강 요한</p>	<p>맥정(말가리다) 공인세무사 · Income Tax · 세무장부정리 · 신규회사 설립 · 경영, 재정상담 ☎ (510)893-2377 2633 Telegraph Ave.#213 Oakland</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건강상담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데비 양(데보라) 보험 3484 Stevens Creek Blvd. San Jose, CA 95117 408-261-1623 Lic.#0G51968</p>	<p>냉장고,세탁기,Oven,Dishwasher TV/Computer Repair (510)896-8348 LVM (510)304-7956 Cell 조승구 요셉</p>	 <p>+성지순례 전문+ ANGEL Tour & Travel, Inc. 757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대표: 이 경혜 안젤라 Tel. 213-999-6294 e-mail: angeltourtravel@gmail.com www.angeltourtravel.com</p>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